



청도지역의 견훤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Facts or Figures seen in Kyeunhuen(견훤) Legends of Cheongdo

저자 (Authors)	천혜숙 Chun, Hye-sook
출처 (Source)	실천민속학연구 , (33), 2019.2, 69-117 (49 pages)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 (33), 2019.2, 69-117 (49 pages)
발행처 (Publisher)	실천민속학회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9261
APA Style	천혜숙 (2019). 청도지역의 견훤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실천민속학연구, (33), 69-1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11 10: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청도지역의 견훤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천혜숙**

〈목 차〉

1. 머리말
2. 청도지역의 견훤전승
3. 나말려초의 청도와 견훤전승의 역사적 진실
4. 결어

[국문초록]

청도지역의 견훤관련 전설은 소략한 편이지만 신라 왕경과 경계인 운문면에 분포한 데다 흥미로운 변이를 보여주고 있어, 전설과 역사의 관계 해명에서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다. 하나는 전설의 전승과 분포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반영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은 전설적 사실들이 기록에서 부재하는 역사를 부분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설의 전승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상과 구조의 역사, 그 역사적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 보는 것이다.

우선 청도는 신라 왕경의 기전(畿甸) 지역으로 왕경의 수호를 위해 서기정(西畿亭)이 배치되어 있던 곳이다. 또한 전설군이 채록된 운문면 신원리는 왕경의 서쪽 경계지역으로 일찍부터 한반도 서남부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개척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말려초 후 백제와 고려가 경상도 공략에 힘을 쏟았을 당시, 이 지역에서도 공략과 교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설 전승의 사실 자체가 그러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견성싸움’ 기사는 당시 청도지역의 전쟁사를 읽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태조는 이 싸움을 계기로 선종계열의 승려 보양과 밀양 호족 손공훈 장군과의 삼자 연대

* 이 연구는 2017학년도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를 통해 작갑사[운문사]를 중창하고 청도지역을 우회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견훤의 경우는 견성싸움 기사의 '산적' 외에는 달리 공략을 읽을 만한 어떤 단서도 없다. 견훤이 쌓았다는 지룡산성이 이 미궁의 역사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코드이다. 당시 후백제와 고려간에 벌어진 전쟁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견훤의 지룡산성 축조'와 '태조의 운문사 중창'은 청도지역에서 이루어진 양국간의 대립적 공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승자의 비호를 받은 운문사는 고려조 이래 사세가 크게 확장된 데 비해, 패자의 지룡산성은 거의 무너진 채 몇 편의 전설로 그 역사적 기억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견훤전승이 담았던 역사적 진실은 나말려초의 사실적 역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실적 기억은 전설의 전승과정에서 형상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지역의 견훤 전승에서는 후백제 왕 견훤이 점차 망각되고 지령이 또는 '지룡'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룡의 연표와 형상은 지령이를 용신격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지역유형의 지룡은 신이한 능력으로 거사 도모를 위해 산성을 쌓았지만 그 정체가 노출되어 실패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지령이/지룡의 정체 노출 - 거사 실패의 구조가 두드러지면서 동 지역의 이무기 전승과도 접맥되는 흥미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때로 지룡이나 이무기의 실패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주나 잠행으로 유보되는 변이도 확인되는데, 이는 민중의 정신세계가 자주 패배한 영웅의 재귀나 귀환을 기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민중적 세계관이야말로 전설적 형상과 구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이다.

[주제어] 견훤, 지령이, 지룡, 지역적 변이, 정체 노출, 견성싸움, 지룡산성, 운문사, 이무기, 사실적 역사, 역사적 진실, 형상, 구조, 세계관

1. 머리말

나말려초 일어난 후삼국전쟁에 관한 역사 기록 속에서 청도와 연관된 지명, 인물, 사건을 찾이란 쉽지 않다. 당시 청도는 서쪽에서 신라 왕경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였음에도 『삼국사기』를 비롯한 관찬 사서들에는 이 지역에 관한 기록이 거의 부재한다. 이는 왕경의 북쪽 경계인 영천(고을부)을 거쳐 견훤이 도성을 기습한 기록이 남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국유사』의 <보양이목>(권 4, 의해 제5)에 기록된 견성(犬城)싸움이 그나마 유일한 것인데, 여기서도 태조와 보양의 결연이 부각될 뿐 견훤(君)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런데 청도지역의 구비전승은 견훤을 기억하고 있다. 견훤이 쌓았다는 지룡산성도 남아 있다. 『운문사지』에 남아 있는 시편에도 견훤의 산성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견훤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지령이로 말하는 전설도 있지만, 견훤에서 비롯된 존재가 분명하다. 이들 전승이 공적인 사료에는 전하지 않는 내용인 점, 그리고 흥미로운 지역적 변이를 보이는 점에서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 기록상으로 청도는 후삼국 난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곳처럼 보일 정도이다. 나말려초의 역사학에서 청도를 거의 주목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왕경과 인접한 청도 운문지역에서 채록된 견훤전설군의 존재는 나말려초기 지역사의 반영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당시 견훤의 군대가 거쳐 간 여러 지역들에서 전승되고 있는 견훤관련 전설군의 존재로도 지지될 수 있는 사실이다. 전설이 말하는 역사는 그 사실성 여부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기록의 역사가 담지 못한 사실이나 진실을 담지 하기도 한다. 지역의 역사 전설들이 독자적 유형과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것도 그것이 지역사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것임을 반증한다. 이것이 역사인물 전설을 지역사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견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문학[설화학]과 역사학의 두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문학 분야에서는 ‘야래자(夜來者)’ 또는 ‘이류교혼(異類交婚)’ 유형으로 일컬어지는 견훤 출생담을 중심으로 그 신화적 의미와 전설적 변이를 주목해 온 데 비해서, 역사학 쪽의 연구는 주로 사서의 기록에 근거하여 견훤의 후백제 건국 및 패망의 역사와 후삼국 전쟁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 온 편이다. 한편으로 역사학에서는 견훤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와 함께 지역의 ‘속전(俗傳)’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늘어났다.¹⁾ 구전 사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국면이라 하겠다. 설화학에서도 지역의 견훤전승을 주목하고 그것을 지역사와 연관하여 해석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²⁾ 두 분과학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이 상호 보완과 참조

1) 이도학, 『견훤이라 불려다오』(푸른역사, 1998); 류영철, 『공산전투 재검토』, 『향토문화』 9·10합집(전국향토사학회, 1995); 『고려 건국의 발판, 고창전투』, 안동시·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고려시대의 안동』(예문서원, 2006)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라인정, 「견훤설화의 구비전승 상의 변이와 특징」, 『한국언어문화』 45(한국언어문화회, 2000); 황

가 될 때 견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³⁾

이 연구는 청도 운문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견훤전설군을 주목하고, 그 지역적 변이와 특징을 지역사의 맥락에서 해명하기 위해 시도된다. 일차적으로는 견훤전설의 지역적 다양성을⁴⁾ 보태는 작업이다. 이 주제가 어렵고도 흥미로운 이유는 나말려초의 청도사에서 견훤에 관한 기록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사료가 없다고 하여 지역전설의 전승을 대수롭잖게 보고 말 것은 아니다. 오늘날 신역사학의 시각은 기록된 역사와 구전된 역사의 사료적 가치를 차등화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신라 왕경과 인접한 청도 운문 지역에서 견훤관련 전설들이 채록되었고, 동 지역에는 견훤이 쌓았다는 지룡산성도 남아 있어서, 과연 이 전설과 유적이 나말려초 당시 지역사의 공백을 메워주는 숨은 코드가 될 수 있을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전도 의미 있는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견성싸움과 같이 조금이라도 연관된 기록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전설이 담고 있는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에 다가가 보려고 한다.

2. 청도지역의 견훤전승

견훤은 상주 가은현(문경 가은읍) 출신으로 신라 말 군사를 일으켜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이다.⁵⁾ 사벌국 성주인 아자개의 장남으로 출중하고 지략이

인덕, 「연무읍 지역의 견훤전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46(한국언어문화회, 2001); 신해진, 「고전 문학과 지역성」, 『어문론총』 41(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황진현, 「역사적 사실의 민속문화 형성과 민속의 사료기능」, 안동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2009) 등을 들 수 있다.

3) 위의 두 각주에서 든 연구 외에도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많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하고, 본 연구주제와 연관된 경우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논급하기로 한다.

4) 황인덕, 앞의 글, 187쪽.

5) 견훤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권제50, 열전 제10)의 〈견훤〉과 『삼국유사』(권2, 기이 제2)의 〈후백제 견훤〉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고려사』(권제1, 세가 제1 태조)와 『고려사절요』(제1권, 태조 신성대왕)의 전쟁관련 기록들,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삼국유사』(권2, 기이 제2)에 있는 동시대 왕들에 대한 기사에도 부분적이거나 견훤의 행적이 담겨 있어 참고할 만하다.

많았으며, 15세가 되어서는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신라군에 종군하여 서남해지역의 방수에 부임하였다가 신라 쇠망기에 민심을 얻어 광주에서 거병하여 왕이 되었고, 마침내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했다. 신라 골품제도의 혼란 속에서 일개 비장으로 건국주가 된 점에서 견훤은 혁명적 영웅이라 할 만하다. ‘아래자(夜來者)’ 유형의 출생신화가 광포된 것도 그러한 영웅적 면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라 하대에는 정치적 불안과 흉년이 겹쳐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지역의 호족들도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후백제, 고려, 신라 삼국이 대치하는 후삼국시대가 되었고, 쇠약해진 신라가 왕경 일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게 된 상황에서 후백제와 고려 양국은 영토를 넓히기 위한 각축전을 지속하였다. 신라 왕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상도 땅을 공략해야 했으므로, 양국 간의 본격적 교전은 경상도지역으로 진입하는 요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경상도 서남부 쪽에서는 합천과 진주 등지에서, 경상도 북부권에서는 문경·상주·예천·영주·안동 등지에서, 그리고 중간지역인 의성·군위·칠곡·성주 등지에서 양국간에 크고 작은 교전이 거듭되었다. 대구 공산전투와 안동 병산전투를 거치면서 양국의 판세가 뒤바뀌었다가 결국 선산 일리산전투를 마지막으로 최종의 승리는 태조의 것이 되었다.

이미 일리산전투가 있기 전에 장자 신검 등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반역한 사건이 일어났다. 견훤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태조에게 항복하였고, 신검의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 일리산전투의 선봉에 선다. 신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자, 견훤은 등창이 나서 황산 불사에서 세상을 마감하였다. 결국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신라 진성여왕 6년(892)에 일어나 고려 태조 19년(937)에 이르렀으니, 45년만에 패망한 것이다.

이상에서 출생, 거병과 건국, 후삼국 전쟁기의 활약, 항복과 죽음을 중심으로 견훤의 일생을 요약했다. 그런데 나말려초의 청도사에서는 이상과 같은 견훤의 행적 가운데 한 자락도 비치지 않는다. 큰 규모의 전투가 없었기 때

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칠곡이나 고성 등지는 전야의 화곡을 노략질한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도 같다. 역사 기록은 침묵하는데 현지에서는 견훤전설들이 전승되어 온 이러한 상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우선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견훤관련 전설을 유형별로 개괄하고 그 지역적 변이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견훤전설군의 전승양상

청도 현지의 견훤관련 전설은 견훤의 이름을 표방한 것도 있지만, 그냥 지령이, 지룡이, 지룡이 등으로 언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대체로 ① 견훤의 출생담, ② 지령이/지룡의 거사 실패담, ③ 지령이/ 지룡이 쌓은 지룡산성, ④ 지명유래담의 네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1) 견훤 출생담: 지령이 아들 견훤의 출생과 거사 실패

‘아래자’ 유형으로 일컬어지는 『삼국유사』의 견훤 출생담과⁶⁾ 유사한 내용이다. 다만 견훤의 어머니가 광주 북촌이 아니라 청도 신원리 출신으로 나타나고, 견훤의 축성과 거사 실패 단락이 더 보태졌다.

(2-①) 견훤 출생담: 지령이 아들 견훤의 출생과 거사 실패

청도 운문면 신원리 내포에 한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다. 어느 날 밤에 낮선 총각이 찾아왔는데, 서로 이끌려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총각은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는 첫닭이 울기 전에 사라지곤 했다. 처녀가 좋은 혼처를 계속 마다하자 부모가 의심하여 추궁했다. 몇달 후 딸이 잉태한 것을 알게 된 부모가 딸을 더 다그쳤다. 처녀는 자신도 그의 정체를 모르며, 석달 후 혼인하자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동네

6)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후백제 견훤.

에 퍼지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어머니가 처녀에게 총각의 발목에다 명주실을 묶어두라고 시켰다. 처녀는 갈등하다가 결국 어머니 말씀을 따랐다. 날이 밝아 부모가 그 명주실을 따라가 보니 복호산 중턱에 위치한 깊은 동굴 속에 오색찬란하고 짙동만한 지렁이가 자고 있었다. 처녀의 부모가 지렁이 몸통에 노루가죽을 덮어 씌워서 죽였다. 그 후 처녀가 낳은 아이가 후백제 왕 견훤이다. 견훤은 신라를 정복하기 위해 선조의 영지인 지룡산을 찾아가 지룡산성을 구축하였으나 인심을 얻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⁷⁾

이야기의 서사단락들을 순차적 구조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한 총각이 밤마다 처녀를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사라졌다. (아래-교혼)
- ㉡ 처녀가 임신을 하자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임신)
- ㉢-1 어머니가 총각의 발목에다 명주실을 매어두라고 시켰다. (정체 확인1)
- ㉢-2 갈등하던 처녀가 어머니 시킨 대로 했다. (정체 확인2)
- ㉢-3 날이 밝아 실을 따라가 보니 복호산 중턱 동굴 속에 큰 지렁이가 자고 있었다. (정체 노출)
- ㉣ 처녀 부모가 지렁이를 죽였다. (죽음)
- ㉤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후백제왕 견훤이다. (출산)
- ㉥ 견훤은 신라를 차지하려고 아버지의 땅을 찾아가 산성을 구축했다. (거사 도모-산성 구축)
- ㉦ 견훤은 인심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거사 실패)

견훤의 출생담과 거사 실패담이 복합된 이야기이나, 출생담의 비중이 더 크다. 그 밖에도 이 이야기는 아래자와 처녀의 사랑, 기다려달라는 총각과 갈등하는 처녀의 모습 등에 대한 묘사가 화려하다. 채록지와 제보자에 대한

7) 청도군, 『청도군지』(1991), 864~866쪽.

정보가 없고, 편집자에 의해 다소 윤색된 자료로 보인다.

(2) 지령이/지룡의 거사 실패담

이 유형은 아래자 지령이와의 교혼이 영웅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래자’ 유형과 다르다. 따라서 아래자 지령이 또는 지룡이 직접 거사를 도모하는 영웅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 내용과 서사단락별 순차구조를 차례로 정리해 둔다.

(2-㉞) 지룡이의 거사 실패1 : 도사의 지략과 신력으로 정체가 드러나 거사에 실패한 지룡이

이 부근의 ‘돌미이’[돌뫼]라는 들에 옛날에는 주막이 있었다. 언양에서 오는 소금장수들이나 신원의 술장수들이 등짐을 지고 오가면서 그 주막에서 머물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했다. 그 주막에 과년한 처녀가 살았는데, 밤마다 한 총각이 와서 그녀를 범하였다. 그것을 알게 된 도사가 처녀에게 명주꾸리를 주면서 총각의 허리띠에다 묶어두라고 시켰다. 다음날 아침 그 실을 따라가 보았더니 복호산 산정의 큰 굴 속에 눈이 매구짝만 하고 덩치가 커다란 지룡이가 있었다. 지룡이가 산성을 쌓아놓고 인간으로 부활하여 왕 노릇을 하려다가 도사에게 발각된 바람에 성공을 못했다. 막 인간으로 화하려고 하는 찰나에 도사가 진언을 쳐서 잡았다.⁸⁾

(2-㉟) 지령이의 거사 실패 2 : 처녀의 지략으로 정체가 드러나 실패한 지령이

한 처녀에게 밤마다 (누군가가) 와서 자고 갔다. 그는 자다가 나가서는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곤 했다. 이복소 전설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가 나갈 적에 명주실을 감아놓았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명주실 매어놓은 것을 그가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큰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처녀가 알아버린 바람에 성공을 못했다. 그는 지령이가 화(化)한 것이었다. 그 지령이가 큰

8) 박순기(여, 조사당시 69세) 제보,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2009. 4.25. 채록함.

돌들을 산 위로 훑쳐 올려서 세운 성이 지룡산성이다.⁹⁾

(2-㉞) 서사구조

㉞-1 밤마다 한 총각이 와서 처녀를 범했다. (아래-교혼)

㉞-1 도사가 명주꾸리를 총각의 허리끈에다 매어두라고 시켰다. (정체 확인1)

㉞-2 처녀는 도사가 시킨 대로 했다. (정체 확인2)

㉞-3 이튿날 명주실을 따라가 보니 복호산 굴 속에 큰 지렁이가 있었다. (정체 노출)

㉞ 지렁이는 장차 왕이 되려고 산성을 쌓아두고 있었다. (거사 준비/축성)

㉞ 지렁이가 막 인간으로 화하려고 하는 찰나, 도사가 신력으로 잡았다. (거사 실패/죽음)

(2-㉟) 서사구조

㉟-1 밤마다 누군가가 처녀에게 와서 자고 갔다. (아래-교혼)

㉟-2 그는 자다가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오곤 했다. (교혼)

㉟ 이상하게 여긴 처녀가 그의 옷에다 명주실을 매어두었다. (정체 확인)

㉟ 그것을 알고 그가 다시 오지 않았다. (거사 실패)

㉟ 지렁이가 돌을 산 위로 올려 쌓은 성이 있다. (+거사 준비/축성)

지렁이의 ‘정체 노출-거사 실패’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만 정체 확인을 시도하는 존재가 다르다. (2-㉞)에서는 도사의 지략으로 지렁이의 정체가 노출되자 도사가 신력으로 그 지렁이를 죽이는 데 비해, (2-㉟)에서는 처녀의 지략으로 정체가 노출되지만 죽음의 단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2-㉟)의 변이가 흥미롭다. (2-㉟)에서 자다가 한동안 나갔다 들어오는 단락(㉟-2)과 자신의 정체가 노출된 것을 알고 잠적하는 단락(㉟)은 동 지역에서

9) 임학연(남, 조사당시 82세) 제보,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2009. 7.25. 채록함.

전승되어 온 이무기전설과도 근접해 있다.

(3) 지렁이/지룡이 쌓은 지룡산성

지렁이 또는 지룡이 쌓았다고 하여 지룡산성이라고 하며, 호거산성 또는 운문산성으로도 불린다. 산성이 있는 산이 운문산의 지맥인 호거산이기 때문이다. 지룡산성을 따라 지룡산이라고도 불리나, 신원리 마을분들에게는 복호산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다. 호거(虎踞)나 복호(伏虎)나 모두 호랑이가 웅크린 형국에서 유래된 이름이다.¹⁰⁾ 산정에는 지금도 둘레가 300여m 남짓한 석성터가 남아 있다. 이 유형에서는 축성의 주체가 견훤이 아니라 그냥 지렁이나 지룡으로 나타난다. 지룡산성에 초점이 주어지고, 축성 과정의 신이(神異)가 부각된 것이 특징이다.

(2-④) 대궐터의 지룡산성

복호산 위에 가보면 대궐터로 알려진 곳이 있는데, 여기저기 기와조각들이 있다. 여기 지룡산성이 있다. 이 산 정상에는 산돌이 아니라 걸돌로 쌓아놓은 돌무더기들도 여기저기 있다.¹¹⁾ 지게로 서너 짐 되는 크기이다. 지룡산성은 좁고 긴 모양의 돌로 쌓았는데, 그 길이가 한길 두절이나 된다. 돌을 깎 표시도 있는데, 그 큰 바위들을 어떻게 깨서 그렇게 쌓았는지 신기하다. 지룡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¹²⁾

산성 주변에 있는 돌무더기의 돌이 산돌이 아니라 걸돌이라고 하거나,¹³⁾

10) 『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청도군 산천)에서는 ‘운문산’, <경상도청도군동호거산운문사사적(慶尙道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事蹟)>(1778)『운문사지』(한국학문헌연구소편, 아세아문화사, 1977)에서는 ‘호거산’이라고 하며, <대동여지도>와 <청구도>에는 두 산이 따로 나타나 있는 등, 지룡산이나 복호산까지 합하면 이름이 여럿이지만 모두 운문산의 지맥에 있는 호거산을 다르게 일컫은 것이다.

11) 형님인 임학연 씨가 복호산 정상에 있는 돌무더기들은 이서국 국왕이 진을 친 곳이라고 반박하면서 이야기의 방향이 다소 흐려졌다. 그러나 이서국 국왕 전설은 청도읍 소라리 부근의 ‘은왕봉’과 관련된 것이므로, 임학연 씨가 착각한 것이다.

12) 임봉두(남, 조사당시 73세) 제보,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2009. 7.25. 채록함.

13) ‘걸돌’은 거렁이나 하천가의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렁이가 걸돌들을 신력으로 산정으로 옮겨 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산성을 쌓은 자연석의 길이가 한질 또는 두질이나 된다고 한 묘사에서 지렁의 신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앞의 (2-㉔) ㉔단락과도 유사하다.

(4) 지명유래담 : 지렁이를 잡기 위한 전략

닭을 키웠던 ‘다숫골’(닭골)과 소금창고가 있었다는 ‘염창이’[염창(鹽倉)] 마을의 지명유래담이다. 닭이 좋아하는 먹이가 지렁이고 또 지렁이는 소금에 힘을 쓰지 못하므로, 지렁이를 잡기 위해 그렇게 방비해 두었다는 내용이다.

(2-㉔) 다숫골과 염창이의 유래

지렁이가 해코지를 많이 했다. 이 동네 위쪽에는 당시 닭을 많이 먹어서 다숫골 이라고 불린 동네가 있었다. 그리고 이 동네[신원리] 이름은 당시 염창이였는데, 소금창고가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 모두 지렁이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다.¹⁴⁾

견훤과 닭에 관한 전설은 논산 연무읍, 상주 화서면 등지에서도 조금씩 다른 내용이지만 채록된 바 있다.¹⁵⁾ 소금으로 견훤을 잡은 사례는 더 많은 지역에서 확인된다. 특히 후삼국 통일전쟁의 결정판이었던 안동[고창] 병산전투에서는 ‘간수내(가수내)’ 또는 ‘지르내’에다 소금을 퍼다 부어 견훤을 잡았다는 전설이 나타난다.¹⁶⁾ ‘간수’는 소금의 의미이고 ‘지르’는 지렁이를 가리킨 것이다. 이 전설은 병산전투에서 견훤이 대패한 역사와 연관되면서, 당시 고려 태조를 도운 안동 삼태사의 활약을 부각해 준다. 견훤과 관련하여 닭 또는 소금의 상징이 나타나는 것은 비슷하나, 청도 운문면에서는 포획을 위한 전략적 의미를 지녔을 뿐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14) 임봉두 씨(남, 조사당시 73세) 제보, 운문면 신원리에서 2009.7.25. 채록함.

15) 라인정, 앞의 글, 60~61쪽; 황진현, 앞의 글, 86쪽 참조.

16) 『한국구비문학대계』 7-9(1981), 안동시 북후면 설화 62, 예안면 설화 21 참조.

2) 지역적 변이와 특징

청도지역의 전횡전승은 운문면 신원리에서 직접 채록한 네 편과 『청도군지』에 게재된 한 편까지 해서 다섯 편 남짓이지만, 내용 및 변이의 양상이 상당히 흥미롭다. 우선 채록된 자료의 성격부터 검토하자면, 다소 윤색된 (2-㉠)와 달리, (2-㉡) · (2-㉢) · (2-㉣) · (2-㉤)는 지룡산성이 위치한 신원리에서 오래 거주해 온 분들로부터 얻은 자료라는 점에서 지역성을 담보한 것들이다. (2-㉡) 자료를 구연한 박순기 씨는 설화적 기억과 충기와 논리가 돋보이는 제보자이다. 신원리로 시집온 후 시조모로부터 마을 주변의 전설에 대해 자주 들었으며, (2-㉡)도 그 중 하나이다. 오래 전 86세로 타계한 박씨의 시조모는 동네 혼인을 하여 신원리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마을 주변 전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2-㉡)는 신원리의 전승을 정확하게 담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2-㉤)를 들려준 임학연 · 임봉두 씨 형제 역시 신원리 태생으로, 두 분 모두 지역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많은 편이다. 현장에서 두 분은 서로 논쟁도 하고 기억도 환기시켜 가면서 주제가 선명한 지역전설들을 구연했다. 임봉두 씨는 청도 5갑(岬) 가운데 하나인 ‘가슬갑사’ 지(址)에 대해서 경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긴 추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분이 제공한 네 편의 자료들은 지역유형으로서 독자성이나 대표성이 인정될 만하다.

(2-㉠) · (2-㉡) · (2-㉢)는 아래자와의 교혼이 포함된 서사전설인 비해, (2-㉣) · (2-㉤)는 설명전설이다. 아래 표는 서사전설 세 편의 서사단락들을 비교해 본 것인데, 유사한 단락소들이 확인되는 동시에 미묘한 변이도 포착되고 있다.

〈표 1〉 전설 각편의 서사단락과 단락소 비교

단락소 \ 각편	2-㉠(『청도군지』)	2-㉢(박순기)	2-㉣(임학연)
㉠ (아래자와) 교혼	○	○	○
㉡ 잉태	○		
㉢ (지령이)정체 확인-노출	○	○	○
㉣ 죽음 (거사 실패)	○ (죽음)	○ (죽음/거사 실패)	△ (잠적/거사 실패)
㉤ 출산	○ (견훤 출생)		
㉥ 거사 도모 (축성)	○ (견훤 축성)	○ (지령이 축성)	○ (지령이 축성)
㉦ 거사 실패	○ (견훤의 거사 실패)		

공통된 서사단락은 아래자 지령이와의 교혼(㉠), 정체 노출(㉢), 거사 도모 (산성 축조)(㉥), 거사 실패(㉦)이다. (2-㉢)·(2-㉣)는 위의 네 서사단락이 나타나는 점, 신원리 태생의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인 점에서 특히 지역성이 강한 유형이다.

지역적 변이의 특징으로는 우선 축성으로 거사를 도모한 존재가 견훤으로 거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령이, 지룡이, 지룡이 등으로 지칭되는 아래자는 영웅 견훤의 출현을 매개하는 부성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거사를 도모하는 영웅의 모습이다.

다음으로는 지령이의 신이한 능력으로 지룡산성이 축조된 사실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신원리에 있는 복호산정에 위치한 지룡산성은 약초꾼이나 초군들의 발길이 자주 이르는 곳이어서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대상이다. 지룡산성 축성과 관련하여 견훤의 신이를 전하는 시편도 전하고 있다. 『운포세고』에 있는 〈산성〉이란 시편에, “견훤이 하루만에 이 성을 쌓았다”(甄萱當日築斯城)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¹⁷⁾ 견훤의 신출귀몰함이 지역의 식자층들에게

17) 한국학중앙연구원, 『운문사지』(1977)의 〈운포세고급만세무현관〉에 수록된 시편이다. 이 책의 262쪽에서 시 원문을 참조할 수 있다.

도 널리 전해 온 것이겠다.

그러한 신이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승에서 견훤/지령이는 한결같이 거사에 실패한다. 이러한 결말은 후백제 견훤이 패망한 역사와도 연계되는 것이겠지만, 지역유형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지령이의 '정체 노출'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곧 지령이가 신이한 능력으로 산성을 축조하고 인간으로 화해서 왕이 될 것을 도모했는데, 도사 또는 처녀의 명주실 지략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마지막으로는 닭을 키우거나 소금을 비축했던 마을의 지명유래담도 나타나는데, 모두 유사시 지령이를 잡기 위한 방책 또는 전략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2-⑥)와 함께 견훤/지령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2-⑦)·(2-⑧)에서 확인된 경이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견훤/지령이에 대한 긍·부정의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점도 이 지역 전승의 특징이다.

견훤전설군이 채록된 운문면 신원리가 밀양-청도방면에서 신라 왕경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점에서, 이 자료들은 나말려초의 청도사와 일정부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지역사 속에서 견훤전승의 지역유형들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3. 나말려초의 청도와 견훤전승의 역사적 진실

구비전승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장르들이 나름대로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구전 자체의 유동성이나 불안정성을 들어서 사실성에 대한

『운포세고』에 관한 정확한 서지는 찾지 못했다. 『운문사지』의 편자가 『운포세고』에서 운문사 주변의 절경과 관련된 시편들을 뽑아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청도-밀양을 중심으로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이 열었던 운문구곡(雲門九曲) 문화와 연관이 있는 시편들이 아난가 짐작된다. 같은 책에 실린 시편 <지룡산성>에서, 이 산성을 두고 '천년의 오랜 세월(曠劫千年)'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운포세고』는 적어도 구한말이나 20세기 초기에 씌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견훤의 지룡산성에 관한 전승이 실로 오래 지속되었음을 방증해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신뢰를 유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비전승의 역사성은 사실적 정확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허구성이 강한 민담조차 ‘역사적 문서’가 될 수 있다고 한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도¹⁸⁾ 이러한 다른 차원의 역사를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전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언술인 점에서 특히 역사와 연관이 깊은 장르이지만,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록된 역사와 차등화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전은 허구이고 역사는 사실이라는, 기록사료 중심의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 또는 기억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보는 신역사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전설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의 사료적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설이 말하는 다른 차원의 역사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전설에서 어떤 역사를 읽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설과 역사의 관계에서 대체로 세 가지 측면을 문제삼을 것이다. 하나는 전설의 전승과 분포 자체가 역사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측면을 확인하자는 것이고, 둘은 전설적 사실들이 기록에서 부재하는 역사를 일정부분 보완해 주는 측면을 드러내 보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설적 형상이나 구조가 담고 있는, 보다 장기지속적인 인식과 세계관의 역사를 읽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설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 또는 전설의 형상과 구조에 대한 숙고와 성찰이 요구된다.

1) 나말려초 청도의 입지와 전설 전승의 관계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청도는 동으로는 경주시와 울산시, 서로는 달성군과 창녕군, 남으로는 밀양시, 북으로는 경산·영천시 및 달성군에 접하고 있다. 흔히 군 중앙에서 남북으로 걸쳐 있는 곰티재를 중심으로 산동과 산서로

18) 로버트 단턴,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문학과 지성사, 1996), 28쪽.

구분한다. 그리고 산동지역의 최동단에 있는 운문면은 경주 서단의 산내면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청도에서는 일찍이 신라 왕경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개척되어 있었다. 경주시 산내면에서 발원하는 동창천은 청도군의 운문·금천·매전면을 지나 청도읍 유희리에서 청도천과 합류하여 남쪽의 밀양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라 왕경에서는 서교(西郊)인 건천을 거쳐서 청도를 동북에서 서남으로 관통할 수 있었다.¹⁹⁾

청도라는 지명이 역사에 나타난 것은 고려 태조 23년(940)이다.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이서국이 신라에 복속된 후, 구도성 경내의 솔이산·경산·오도산 3성을 합하여 대성군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대에는 세 성을 소산·형산·오악현으로 각각 개칭하여 모두 밀성군의 영현으로 했다. 고려초 고 이서국 땅과 위의 세 현을 다시 합쳐서 청도군으로 고쳤다.²⁰⁾ 원래 대성군의 영현이었던 약장현과 동기정은 이때 경주에 합속되었다고 한다.²¹⁾ 이상이 역대 지리지 류에 기록된 청도의 약사이다.

그러나 이기동은 김정호의 『대동지지』 기록 등을 근거로 고려조 청도가 된 지역이 대성군이 아니라 상성(商城)군 관할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청도를 대성군 관할로 보고, 오악·형산·소산을 대성군과 밀성군 조에 중복하여 기록한 오류를 역대 지리지들이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따르면, 상성군은 오늘날의 경주 서부지역과 청도 동부지역을 포함한 땅이었는데, 고려초에 상성군에 속했던 청도 동부지역과 밀성군에 속했던 현 청도의 서남부지역이 합해서 지금의 청도군이 된 것이다.²²⁾

19) 이 단락은 이기동의 「신라 중고기 청도 산서지방의 전략적 중요성」(『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97), 48쪽에서 참조.

20) 『신증동국여지승람』 26권, 청도군 참조.

21)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 제3, 대성군 참조.

22) 이기동, 앞의 글, 49~51쪽에서 오류가 생겨난 배경과 오류를 바로잡는 근거에 대해 상술하였다. 이 논의는 무엇보다 『삼국사기』(권제 34 잡지 제3 지리1)에 기술된 대성군의 위치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아 주었다. 『삼국사기』(상동)에서는 대성군의 영현으로 약장현과 동기정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대성군이 청도군이라면 동기정이 있었을 리 없다. 동기정은 왕경의 동쪽에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기동의 주장대로 대성군은 청도군이 아니라 경주 동쪽에 있었으며, 상성군의 일부가 청도

이어서 그는 청도 서남부인 산서지역에 당시 신라의 6기정(倂) 가운데 하나인 서기정(西畿倂)이 있었으리라 추론하고 있다.

상성군은 경주군의 서교(西郊)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상성군 관할 내에 있었다고 하는 5개의 정(倂)은 마땅히 경주군 이서(以西), 즉 영천·경산·청도군 일대에 서 찾아야 할 것이다. ... 그 중에서도 경덕왕 대 서기정(西畿倂)으로 개명된 두량미지정(豆良彌知倂)의 소재지를 현 청도군 서남단, 즉 밀양군과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청도군 각남면에 비정하고 싶다.²³⁾

정(倂)이란 왕조시대 군사요충지에 설치한 일종의 군사시설이다. 이기동에 의하면 청도가 당시 왕경의 기전(畿甸) 지역에 속했으며, 그 곳의 서남단 쪽에 서기정(西畿倂)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도지역은 신라 하대까지 왕경의 수비를 위한 군진(軍陣)이 배치된 곳이었다. 기전 지역이란 왕성 주변 500리에 걸치는 곳이므로 청도의 입지상 가능한 추론이다. 나말려초 청도의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나말려초 청도의 입지가 이러한데, 당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사서들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기록상으로는 후삼국 난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곳으로 보일 정도이다. 청도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견훤전설의 존재가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이다. 나말려초 견훤군이 거쳐 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경우는 사료는 부재하고 전설도 소략한 편에 속한다. 역사와 전설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고도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전설이 일정부분 역사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견훤전승의 지역간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청도지역은 견훤관련 전설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대구 공산이나 문경 가운면 일대는 풍부하고도 다양한 전승이 확인된다. 그러면서도

관할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이기동, 위의 글, 50~51쪽.

두 지역의 전횡전승은 유형이나 내용 면에서 판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대구 공산 부근에서는 교전 상황이나 태조의 도주로를 따른 다양한 지명전설과 인물전설이 전승되고 있어,²⁴⁾ 이곳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규모나 참극을 짐작케 한다. 이에 비해, 문경 가은면 일대에서는 전횡의 출생담, 훈련담, 전투담이 두루 전승되고 있는데,²⁵⁾ 이곳이 전횡의 생장지이면서 전장(戰場)이기도 했던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에서 있었던 나팔려초의 전쟁사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청도지역에서 전횡전승이 소략한 것은 지역민들이 기억하고 서사화할 만한 전쟁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적 역사의 반영으로 또 주목되는 것은, 청도지역의 전횡전설군이 운문면 신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왕경 경주의 서단에 위치한 운문면 신원리는 대찰 운문사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 그 동쪽 끝의 문복산록을 돌아 경주의 산내·내남면을 거쳐서 왕경으로 내왕하였던 교통의 요지였다. 경주에서 청도-밀양-창녕-거창을 거쳐 육십령 고개를 넘으면 전주-부여로 이어졌고, 김해-양산-밀양-경주-상주로 연결되는 고대 남북횡단 간선로도 이곳을 거쳐 갔다. 이 마을에 원(院)이 들어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한반도 서남부 쪽에서 신라 왕경으로 내왕하는 사신 행차나 송부(送付) 및 공부(貢賦)의 행렬들이 이곳을 거쳐 갔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도 이곳으로 모여들었으리라 짐작된다. 전횡관련 전설이 운문면 신원리에서 채록된 것도 이러한 지역의 입지와 전설의 전승이 일정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교전 또는 공략의 역사와 지룡산성의 존재

그렇다면 실제로 청도지역에서 후삼국간에 교전 또는 공략이 이루어졌을

24) 대구 공산전투가 일어난 공산 부근에는 양국의 군대가 격돌했던 '살내', '파군재'를 비롯해서, 태조의 도주 경로와 도주시의 심경을 담은 '해안', '안심', '반야월' 등의 지명과 유래담들이 전하고 있다. 또 태조를 대신해서 죽은 신숭겸에 관한 비극적 전설도 풍부하게 전승된다.

25) 문경시, 『전횡의 출생과 유적』(1996), 59~124쪽.

까, 과연 기록에 부재한 지역의 전쟁사를 전설자료가 보완해줄 수 있을까가 문제이다. 역사기록이 부재한 지역에는 교전이나 공략이 없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역사 기록은 어차피 선택적이고, 승자 위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찬 사서는 아니지만 『삼국유사』의 견성싸움에 관한 기록에서 태조의 동정이 청도지역까지 미쳤음을 전하고 있는 데다, 견훤이 쌓았다는 지룡산성과 전설들도 남아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전 또는 공략의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다.

(1) 청도지역의 교전 또는 공략의 역사

① 교전 여부

초기의 역사학자들은 아래 기록의 진례성進禮城을 청도의 오례산성으로 비정하면서, 나말려초 당시 고려 또는 후백제 군대가 청도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았다.²⁶⁾

(3-a) 경명왕 4년(920년) 10월에 후백제 왕 견훤이 보·기병 1만을 거느리고 와서 대야大耶성을 공합하고 군사를 진례성進禮城으로 진군하니 왕은 아찬 김을을 고려에 보내어 태조에게 원조를 구하였다. 태조가 부장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구원하니 견훤이 이를 듣고 돌아갔다.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제12, 경명왕)

그러나 진례성에 대해서는 경남 김해, 전북 금산, 전남 순천 등지에 동일한 군명이 있는 데다, 견훤의 군대가 대야성(합천) - 구사성(창원) - 진례성(김해)의 남해안 공략 경로를 취했을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거의 김해설로 굳어졌다.²⁷⁾ 그 밖에는 『삼국유사』의 견성싸움 기록이나 밀양 손

26) 진단학회, 『한국사』 중세편(을유문화사, 1981), 42쪽.

27) 정청주, 「견훤의 호족정책」(『역사학연구』, 2002), 87쪽에서는 진례군을 여전히 청도로 비정하면서, “견훤이 신라로 접근하기 위하여 진주·합천·영천·청도 등, 경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는 지역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하고 있다.

궁훈 장군의 활약을 들어서 당시 청도지역까지 태조의 군대가 들어왔으리라는 간략한 언급이 있었을 뿐,²⁸⁾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성싸움의 기록은 청도 지경까지 태조가 동정(東征)한 사실과 더불어 교전의 상황이 언급된 결정적인 단서이다.

(3-㉔) 처음 법사가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먼저 추화군[밀양군] 봉성사에 머물렀는데, 이때 마침 **고려 태조가 동정(東征)해서 청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산적들이 전성에 모여서 교만을 부리고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가 산 밑에 이르러 법사에게 산적들을 쉽게 물리칠 방법을 물으니, “대체로 개란 짐승은 밤만을 맡았고 낮을 맡지 않았으니, 앞만 지키고 그 뒤는 잊고 있습니다. 마땅히 대낮에 그 북쪽으로 쳐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태조가 그 말을 좇으니 **적은 과연 패해서 항복했다.** 태조는 법사의 그 신통한 피를 가상히 여겨 매년 가까운 고을의 조(租) 50석을 주어 향화를 받들게 했다. 이에 이 절에 이성(二聖)의 진용을 모시고 절 이름을 봉성사라고 했다. 뒤에 법사는 진용을 작갑사로 옮겨서 크게 절을 세우고 세상을 마쳤다. (『삼국유사』 4권 의해 제5, 보양이목)

위의 기록에서 전성에 모여 있었던 ‘산적’은 후백제군이 분명하다. 다른 기록들에서도 후백제군에 대해 ‘백제 횡적’, 적수, 적 등의 표현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전성싸움은 ‘보양선사의 작갑사 중창-후삼국 통일(936년)과 태조의 전지 시납-운문선사의 사액(937년)’으로 이어진 사건들 이전에 있었으므로, 93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될 수 있다.²⁹⁾

28)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서경문화사, 2010), 63쪽.

29) 이 글에서는 중창과 사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한 문맥에서는 운문사로 통칭한다. 엄밀히 보양이 중창한 사찰은 작갑사이다. 태조가 통일을 완수한 후에 이 작갑사를 운문선사로 사액한 것이므로, 작갑사 중창과 운문선사 사액(937) 간에는 다소간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 아래의 기록이 사건의 전후를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여기 절을 세우고 살면서 절 이름을 작갑사라고 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오갑의 밭 500결을 이 절에 바쳤다. 또 청태 4년 정유(937)에 운문선사를 사액했다.” (『삼국유사』 권제4 의해 제5, 보양이목)

한편, 아래 기록의 해산성을 청도의 견성으로 보기도 하나,³⁰⁾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3-㉔) 여름 5월 정남대장군 유검필이 의주부(의성)를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사자를 보내 “나는 신라가 후백제에 침략 당함을 염려하여 일찍이 장수를 보내 지키게 하였는데, 지금 후백제가 해산성(海山城)과 아불진(阿火鎭) 등을 약탈한다고 하니, 만약 신라의 국도에까지 침공하거든 마땅히 가서 구원하라.”하였다. 검필이 드디어 장사 80명을 뽑아 달려 갔다. [후략]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6년 934년)

이 기록의 아불진(월성 아화)이 왕경 근처인 점, 또 태조가 ‘신라 국도까지 침공 운운’하며 염려를 드러낸 점으로써 해산성 역시 경주 왕경과 가까운 곳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면, 해산성이 ‘청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산성은 견성이 아니라 오해[오례]산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 문경의 고사갈이성을 ‘사갈이성’이라고 부른 사례 외에도,³¹⁾ 오해산성에는 밀양·경산 등지에서 수취한 군량미를 보관하는 군창이 있었으며,³²⁾ 청도천과 동창천이 양쪽으로 흐르는 뛰어난 군사요충지로 알려진 점³³⁾ 등을 근거로 들 수 있겠으나,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다.

간접적이고 단편적이거나 아래 기록들에서도 나뉘려 초 청도에서의 교전 여부를 읽을 수 있다.

(3-㉕) 진성왕 때에 후백제의 횡포한 도적이 그 마을에 쳐들어 와서 종은 없어졌고 절만 남아 있다. (『삼국유사』 권제5 효선 제9, 순순매야 흥덕왕대)

(3-㉖) 신라 이래로 이 군[청도군]의 사원인 작갑사와 그 밖의 크고 작은 사찰들이 삼한(후삼국)의 난리로 망하는 사이에 대작갑 소작갑 소보갑 천문갑 가서갑 등

30) 진단학회, 앞의 책, 49쪽: 청도군, 『청도군지』, 148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 29권, 문경현.

32) 『세종실록지리지』 150, 경상도 청도군.

33) 진상기, 『청도 속으로』(신원사, 2011), 67쪽.

오갑사도 모두 망괴되었는데, 이때 다섯 갑사의 기둥을 대작갑사에 모아두었다.

[중략](『삼국유사』 권제4 의해 제5, 보양이목)

(3-㉔)는 모랑리 사람인 손순이 지극한 효심으로 석종을 얻었다가 후백제의 적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잃어버렸다는 내용이다. 진성왕 6년(892년)에 이미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본 기사에서도 ‘백제 횡적(橫賊)’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후백제군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랑리는 경주 서부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후백제군이 모랑리로 쳐들어갔다면 청도를 거쳐서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양국의 경상도 공략이 본격화되기 전의 일로, 후백제군이 민가를 겁략(劫掠)해 간 수준이었다.³⁴⁾

(3-㉕)는 ‘청도의 사원들이 후삼국 난리로 망하는 과정에서 오갑사가 모두 망괴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오갑은 청도 운문면과 금천면 일대에 소재했던 신라 사찰들로, 운문사 전신인 대작갑사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위치했던 갑사들을 총칭한 것이다. 그 중 하나인 가슬갑[가서갑]사는 7세기 원광이 머물면서 점찰보를 두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갑사의 갑(岬)은 산허리란 의미로, 산이 개울이나 물을 향해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어서 주로 군사적 요충지인 곳이 많았다.³⁵⁾ 특히 운문면 동단에 위치한 삼계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슬갑사에 대해서는 신라의 전초기지 또는 비밀기지였다는 설, 원광의 화랑오계의 발상지이자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었다는 설도 전하고 있다.³⁶⁾ 청도가 신라 왕경의 근기(近畿) 지역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납득할 만한 추론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후삼국 난리에 오갑이 망괴되었다”는 기록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들은 후삼국 전쟁시 청도지역까지도 군대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34) 『삼국사기』(권제11 신라본기 권제11, 진성왕)에는 진성왕 10년에 적고적(赤袴賊)으로 불린 적들이 국도 서남방면에서 일어나 주현을 무찌르고 서울의 서부 모랑리에 이르러 민가를 겁략해 갔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 짐작된다.

35) 진상기, 앞의 책, 136쪽.

36) 『청도군지』(1991), 137~138쪽.

시사한다. 모량리에 쳐들어 온 백제 횡적, 견성에서 패퇴된 산적의 존재도 분명 후백제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사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고 『삼국유사』에 단편적인 기록이 전하는 점에서, 규모가 큰 교전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한편으로 청도지역에서 공산전투나 병산전투와 같은 결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곳이 신라 왕도와 최점경 지역이었던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곳이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경주의 서북단에 위치한 영천도 다르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듯이 태조는 귀부해 온 고을부(영천)의 성주를, 왕경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설득하여 돌려보내고 있다.

(3-①) 경애왕 2년 10월 고을부(영천) 장군 능문이 태조에게 내투(來投)하매, 태조는 그를 위유(慰諭)하여 보내니 그 성이 신라 왕도에 가까웠던 까닭이다.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제12)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이 후삼국의 대치로 좁혀진 후, 후백제와 고려 간에는 왕경이 있는 경상도를 공략하기 위한 각축전이 지루하게 지속되었다. 양국이 조물성³⁷⁾ 대야성(합천)의 공함(功陷)을 거듭 다툰 것이나, 상주·문경·예천 등의 경북 북부지역에서 교전을 거듭했던 것도 신라 왕경 공략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구 공산전투나 안동 병산전투는 그러한 각축전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전투에서 전세가 엇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병산전투에서 대승한 태조에게 최종적으로 승리가 돌아갔다. 견훤의 돌발적인 왕경 기습(경애왕 4년 927년)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체로 왕경에 최인접한 지역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세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청도지역에서 큰 규모의 격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37) 조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김천, 구미, 의성, 성주 등으로 논란이 분분하나, 경북 내륙의 어느 곳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졌다.

② 태조 또는 견훤의 청도 공략

견훤이 돌발적으로 신라 왕경을 기습하기(927년) 전까지는, 후백제와 고려 양국은 신라 왕경 부근의 공략을 삼가는 편이었다. 진입로의 확보가 우선이기도 했고, 비록 쇠약해졌다고 하나 왕경 주변을 6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호족들도 쉬이 어느 편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 태조는 거부해 온 고을부(영천) 성주 능문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3-④). 청도에도 호족이 있었다면 역시 같은 이유로 운신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기록에서 청도의 어떤 호족도 거명되지 않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말려초 전쟁사에서 지역 호족들의 향방이 전쟁의 흐름이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면,³⁸⁾ 위의 현상들은 신라 왕경과 최인접한 지역들이 지녔던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조와 견훤이 왕경과 최근거리에 있는 청도를 간과하거나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태조는 보양선사와의 결연을 통해 ‘우회적으로’ 청도를 공략해 들어가고 있다. 견성싸움에서 태조는 선사에게 적을 물리칠 방법을 물었고, 선사의 말을 좇아 후백제군을 물리쳤다. 둘의 결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조는 보양선사의 작감사[운문사] 중창을 후원하고, 이 사원을 고려 왕실의 비보사찰로 삼고 있다. 더욱이 아래 인용을 보면, 운문사 중창이 태조의 후삼국 통일과업을 위해 미리 준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⑤) 용이 그를 맞아들여 불경을 외게 하더니 금빛 비단 가사 한 벌과 아들이목을 주면서 ...부탁한다. “지금 삼국이 시끄러워서 아직은 불법에 귀의하는 군주가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서 **작감에 절을 짓고 살면 능히 적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몇 해가 안 되어서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38)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역사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참고한 논문들을 예시해 둔다. 정청주, 앞의 글; 채수환, 「신라말 고려초 선종과 호족의 결합」, 『역사와 사회』 8(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 1992); 이명식, 「나말려초 성주지방의 호족세력」, 『대구사학』 65(대구사학회, 2001); 최중석, 「나말려초 성주·장군의 정치적 위상과 성(城)」, 『한국사론』 50(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어진 임금이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오.” 말을 마치자 서로 작별하고 이 골짜기에 이르니, [후략] (『삼국유사』 권제4 의해 제5, 보양이목)

운문사 중창은 물론 불법 수호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이면으로는 삼국요동(三國搖動)의 현실에서 피적(避賊)과 삼국평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동해용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운문사 중창에 대해서는 사액과 시납 등으로 태조가 후원한 부분이 강조된 편이지만, 중창 자체가 전략적으로 준비되고 기획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³⁹⁾ 특히 후삼국시대의 세력판도에서 운문사의 위치는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경주 왕경에서 서쪽으로 건천의 단석산과 여근곡을 넘으면 운문사 초입인 동곡에 이르고, 이 길은 청도-밀양-창녕-고령-거창을 거쳐 육십령 고개를 넘어 전주-부여로 이어졌다. 백제군 쪽 공략에서 볼 때도 운문사는 경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하였으므로 후삼국 전쟁시 중요한 군사 또는 방어기지가 될 수 있었다.

운문사를 중심으로 한 ‘삼국평정’의 과업에는 지역 호족인 손궁훈 장군도 가담하였다. 손궁훈 장군은 나말려초 청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낸 호족이다. 엄밀히 말하면 밀양의 호족이었지만, 보양이 밀양과 청도를 오간 것처럼 손궁훈 장군의 활동반경도 두 지역에 걸쳐 있었다. 장군은 밀양의 부리(府吏)로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였고, 후삼국 통일 전쟁에서 태조를 도운 공로로 광리군에 봉해졌으며, 사후에는 삼중대광사도에 추증된 인물로, 후인들이 밀양의 성황신으로 모시기도 했다.⁴⁰⁾ 아래는 밀성 손씨 문중에서 전하는 <광리군사적> 일부로, 태조와의 관계 및 일리산 전투의 활약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39) 김윤근, 「여대의 운문사와 밀양·청도지방」,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삼국유사연구』 상(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43~44쪽 참조.

4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6권, 밀양도호부 ‘사묘’ 참고.

(3-⑥) 공의 휘(諱)는 공훈(恭勳), 일휘(一諱) **공준(恭俊)**이요, 밀양인이다.공은 신라의 세력이 기울자 칼을 잡고 송도로 가서 왕건을 찾으니 왕건이 기뻐하며 군무를 맡기니 사방을 정복하여 공로가 컸다. 백제의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감금되었다가 금산사로 도주하여 신검을 토벌할 것을 청한 즉 왕건이 허락하였다. 고려 태조 19년 병신(936) 친히 군병을 통솔할 때 대광으로 영기병 2만을 지휘하여 김식희 왕식렴을 전군으로 하고 황산에서 신검군을 대파하고 신검을 잡아 돌아오니 명성이 당대 으뜸이었다. [후략]⁴¹⁾

『삼국사기』 열전이나 『고려사』 세가의 일리산 전투 관련 기록에는 손공훈 장군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지만,⁴²⁾ 문중 기록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밀양구지』 에도 위와 유사한 활약 내용이 약술되어 있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손공훈·김식희 두 장군이 보양선사를 비롯한 운문사의 역대 조사들과 함께 사찰의 조영당(祖影堂)에 모셔져 제향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3-①) “예전에 저희 운문사 생겼을 때 손장군하고 김장군이 계셨는데요. 그

41) 전곡손씨화수회, 『손씨세덕록(孫氏世德錄)』 상권, 서울: 기종족보사, 1993, 31~32쪽.

42) 『삼국사기』 열전, 『고려사』(권제2 세가2 태조2)에서 일리산 전투의 포진(布陣) 부분을 참고하면, “...대광 순식과 대사 공준, 왕렴 ...” 운문이 보이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의 ‘공준’을 일말의 의심 없이 홍성 성주 ‘공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광리군사적』의 포진 부분에 “손공훈, 왕식렴, 김식희 운문”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밀성 손씨 문중에서는 일리산 전투의 포진에 등장한 ‘공준’을 손공훈 장군과 동일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공훈의 활약이 기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밀양구지』 외에도, 공훈의 이름을 ‘일휘 공준’이라고 한 『광리군사적』의 기록(본문 3-⑥참고)과도 연계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건이 일어난 당대에 더 가까운 정사서의 기록에 대해 후대의 지지류나 문중 기록이 갖는 자료적 위상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홍성 성주 공준의 행적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홍성 성주 공준에 관해서는 태조 10년(927년) “왕이 운주(충남 홍성)로 쳐들어가 성주 공준(恭俊)을 성 밑에서 격파하였다”(『고려사』 권제1 세가1 태조1)는 기록이 유일한데, 귀부도 항복도 아닌 격파를 당한 존재가 어떻게 갑자기 일리산 전투에서 대상의 지위로 군진의 선두에 설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김명진이 운주 성주 공준을 굳이 다른 운주 성주인 ‘홍규’와 동일인물로 추단한 것도 이러한 중간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짐작되지만(『고려태조 왕건의 운주 전투와 공준의 역할』, 『군사』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운주 성주라는 공동점만으로 공준과 홍규를 동일인물로 볼 근거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하면 손공훈 장군의 경우는 ‘일휘 공준’의 기록 외에도, 태조제의 귀부와 제후, 일리산 전투 참여, 밀양 호족으로서의 위치, 사후의 성황신격화에 대한 사실이 지역사의 기록으로 전하고 있어서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분들이 운문사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외적이, 이렇게 전쟁 중이나 그럴 때 손장군이나 김장군 그 분들이 운문사에 인제 보양국사 그 분들하고 같이 운문사를 많이, ○○○ 지켜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운문사에서 중구절에 그 분들까지 같이 보양국사랑 창건주랑 해서요, 열세 분을 이렇게 재(齋)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⁴³⁾

아래의 (3-㉠)는 운문사에 있는 <광리군승도비문> 일부인데, 운문사를 중심으로 한 손궁훈 장군과 보양선사의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 ... 장군은 일찍이 무예가 특출하여 신원의 장군평을 연병장을 삼아 장군 석을 세우고 활을 쏘며 말을 달리고 검술을 연마하였다. [태조에 귀부하여 무공을 세운 부분 중략] **광리군은 보양국사가 밀양의 봉성사에서 운문사로 옮긴 뒤, 추화산성에 거점을 두고 이곳에 주둔하며** 수십 차례 비적의 침입을 막았다. [제향 부분 후략]⁴⁴⁾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나말려초 청도 밀양지역에서 태조에 의해 추진된 선종 사원 및 지역호족과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⁴⁵⁾ 나말려초의 통일전쟁에서 태조와 견훤은 각각 거사를 도모한 지역의 호족들뿐 아니라 선종계열 사원들과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데, 이 경우도 그 사례에 해당된다.

손궁훈 장군과 태조의 제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에서는 장군이 태조에 귀부하여 일리산 전투(936년)에 참가하기 전부터 사방에서 활약한 공로가 컸다고 하므로, 역시 견성싸움에서 태조-보양-손궁훈의 삼자간 연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견성싸움-작갑사 중

43) 운문사 범수스님 제보(2009. 7. 25).

44) <광리군삼중대광사도대장군 승도비문>(1985), 전국손씨화수회, 앞의 책, 53~55쪽에서 발췌함.

45) 청도 밀양지역의 경우, 태조와 보양의 결연, 태조와 손궁훈 장군의 제휴가 별도의 사실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태조-선사-호족간 삼자 연대임이 드러났다. 신라 하대의 선종 불교와 지역호족의 제휴에 대해서는 이수건의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일조각, 1990(1984)), 239~242쪽 참조.

창-후삼국 통일(태조 19년 936년) - '운문선사' 사액(태조 20년 937년)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견성싸움의 시기는 안동 병산전투(930년)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⁴⁶⁾ 병산전투 전이라면 대구 공산전투에서 패한 후 변방을 정비하면서 1~2년 남짓 휴지기를 두었던 태조가 경상도 재공략을 개시한 때이고, 병산전투 후라면 이 전투에서 대승한 태조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서면서 경북 북부 지역 호족들의 귀부가 이어졌을 즈음이다. (3-①)에 의하면, 손공훈 장군은 청도로 옮겨온 보양을 따라서, 추화산성에 거점을 두고서도 운문사에 주둔하면서 비적의 침입을 막아주었다고 하니, 양자는 견성싸움을 계기로 태조와 연대하여 고려가 통일전쟁을 완수하기까지 작감사[운문사]를 거점으로 함께 태조를 도왔던 것이다.

이상이 태조 왕건의 청도 공략 개요이다. 태조는 견성싸움에서 백제군을 직접 물리친 적도 있었지만(3-㉠), 이때 만난 지역의 선사 및 호족과의 연대를 통한 우회적 공략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운문사 중창은 바로 그러한 연대와 우회적 공략의 일환이었다.

이에 비해 견훤의 청도 공략은 미궁 속에 있다. 일단 견성싸움의 교전을 견훤군의 청도 공략 사례로 볼 수 있고, 해산성을 오해산성으로 본다면 한 사례가 더 보태질 수 있는 정도이다. 견훤은 전라도나 충청도 쪽에서는 호족과 연대하거나 선종 사원파도 결연한 바 있었는데,⁴⁷⁾ 경상도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상에서 견훤의 경상도 공략은 거의 기습적 침범이거나 노략질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그나마도 견성싸움이 거의 유일한 기록이니, 이런 경우에는 유적이거나 전설이 담고 있는 역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룡산성의 존재가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이다. 『운포세고』의 시편 <지룡산성>에서는 “견훤의 옛자취가 다만 이 성으로 남았구나”(甄萱往跡但餘城)라고 읊고 있는데,⁴⁸⁾ 이러한 상황

46) 각주 29) 참조.

47) 정청주, 앞의 글; 김수태, 『견훤정권과 불교』, 백제연구소 편, 『후백제와 견훤』(서경문화사, 2000).

48) 『운문사지』, 267~268쪽.

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에서 견훤의 행적을 그나마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은 지룡산성이 유일하다. 전설 자료들도 대부분 지룡산성을 견훤/지렁이가 쌓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룡산정에 있는 그 석성은 과연 견훤이 쌓은 것일까, 그렇다면 견훤은 언제, 어떤 용도로 그 성을 쌓았을까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망각된 역사를 읽는 코드, 지룡산성

신라 왕경의 서쪽 경계인 운문산 지맥에 견훤이 쌓은 산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견훤이 태어난 곳도 군사를 일으켰던 곳도 아니고, 더욱이 나말려초 당시 대규모의 결전이 있었던 곳도 아니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에서 운문사의 중창이 선종 사원 및 지역 호족과 연합한 태조의 청도 공략의 일환이었음을 추론하였지만, 지룡산성은 바로 이 운문사 중창에 대응될 만한 견훤 쪽 공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태조의 비호를 받고 대사찰로 사세가 확장된 운문사와 달리 지룡산성의 역사는 망각되고 말았지만, 양자는 신라 왕경과 최인접한 청도 동단지역에서 백제와 고려 양국에 의해 이루어진 상대적 공략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후백제와 고려 양군이 경상도 공략을 개시하던 단계에서는 주로 경상도를 따라 흐르는 낙동강로를 따라서, 또는 계림령이나 조령 등의 고갯길이 통과하는 지역들에 공략이 집중되었다. 경상도로 진입하는 통로의 선점이 왕경 공략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도 서북부권에 속한 상주·문경·안동·예천·의성·칠곡·성주 등지에서, 그리고 서남부권의 합천·진주·창원·김해 등지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거듭되었다.

그러다가 견훤이 경상도 내륙 깊숙이 들어와 왕경을 기습한 사건(927년)이 발생한다. 태조 즉위(918년) 후로 고려와 신라의 관계가 차츰 돈독해지고 태조에게 귀부하는 지역 호족들이 늘어나면서 다소 전세가 불리해진 견훤이 신라 왕경을 기습하여, 경애왕을 자진케 하고 그 족제인 경순왕을 옹립한 사

건이다.

(3-①) 경애왕 4년 정월 태조가 친히 백제를 치매 신라왕은 군사를 내어 도왔다. 2월 태조가 친히 근암성(문경 산양면)을 깨뜨렸다. 4월 강주(康州)(진주) 소관의 돌산 등 사향(四鄉)이 태조에게 귀부했다. 9월 견훤이 고을부에서 아군을 침범하므로 왕이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니 태조는 부장으로 하여금 정병 일만을 출동하여 가서 구원케 했다. 견훤은 고려의 원병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회로 11월에 갑자기 왕경에 쳐들어 왔다. [후략]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제12, 경애왕)

그 여세를 몰아, 이어진 대구 공산전투(927년)에서도 대승을 거둔 견훤은 안동의 병산전투(930년)에서 대패하기까지 2년 남짓 동안, 전반적인 전세에서, 특히 경상도지역의 공략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⁴⁹⁾ 이 시기 견훤과 후백제군의 동향을 더 살펴 보자.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공산전투 후 승기를 잡은 견훤은 경상도지역을 파죽지세로 공략하고 있다.

(3-㉓) **경순왕 원년**(927년) 12월 견훤이 대목군(금 칠곡군 약목면)에 침입하여 전야에 쌓아둔 곡식을 모두 태웠다. **2년**(928년) 정월 고려의 장수 김상이 초팔성(금 합천군 초계면)의 적 홍종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5월 강주 장군 유문이 견훤에게 귀부했다.(*왕 2년 5월, 견훤이 몰래 군사를 보내 강주(금 진주)를 습격하니 장군 유문이 항복하였다.)⁵⁰⁾ 8월, 견훤이 관혼을 시켜 양산(영동군 양산면)에 성을 쌓았는데 태조가 명지성 장군 왕충을 시켜 이를 치게 했다.(*물려나 대야성을 보전하였다.) 견훤은 대야성(합천) 하에 진둔하고 군사를 분산하여 대목군의 화곡을 베어갔다. 10월(*11월), 견훤이 무곡성(군위군 부계면)을 공략하였다.(*장군 양지 명식에게 항복을 받았다.) **왕 4년**(929년) 7월, 견훤이 의성부를 공격하여 고려 장군 홍술이 전사하였다.(*태조가 '좌우의 손을 잃었다'며 통곡했다.) 순주 장군

49) 류영철, 앞의 글, 39쪽.

50) (*) 속은 삼국유사에 기술된 같은 시기 부분을 참고로 보탠 것이다.

원봉이 견훤에게 귀부하니 태조가 듣고 노하였다. 10월에 견훤이 가은현(금 문경 가은읍)을 공함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권제 12, 경순왕)

어쩌면 이 시기에 견훤은 경상도 내륙 깊숙이까지 진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도 지경의 견성 공략도 그 즈음일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청도 현지에서는 견훤의 경주 침공 시(927년) 지룡산성에 있던 기습부대가 문복산을 돌아 경주 서부의 산내·내남면을 거쳐 포석정으로 진입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⁵¹⁾ 그렇다면 견훤의 경주 침공 전에 이미 축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돌발적인 포석정 기습이 가진 무리수를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성은 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고 일단 그 지역이 안정권으로 귀속된 후라야 가능한 작업이란 점에서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위의 (3-㉓)에서도 보듯이 공산전투의 승리 후 견훤은 경상도 중부권인 군위, 의성, 칠곡 외에 남서부의 합천과 진주 공략에도 성공한다. 진주 쪽에서 밀양-청도로 올라가는 간선도로가 일찍이 있었으므로 공산전투 승리 이후 진주를 공함한 견훤군이 이 공략로를 따라 청도까지 들어가서 축성·주둔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⁵²⁾

마침 태조는 공산전투 대패 이후 1년 반 남짓 동안, 경상도보다 변방 쪽으로 더 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3-㉔) 무자 11년(928) 정월 원운 김상 등이 강주를 구하려고 초팔성을 지나다가 성주 홍종에게 패하고 김상은 전사하였다. 2월 대상 염상 등을 보내 안북부성을 쌓고 원운 등으로 지키게 하였다. 윤주의 옥산에 성을 쌓고 지키는 군사를

51) 『청도군지』, 147쪽; 『청도 운문사』, 11쪽.

52) 김갑동, 『고구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서경문화사, 2010), 43쪽에서도 이 시기에 견훤이 적극적인 공세를 펴서 경상도로 진입하여 바로 경주로 통하는 동서통로와 남북통로를 개척하여 언제든지 신라를 직공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북통로로 진주와 합천을 언급할 뿐 더 위쪽의 밀양과 청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역시 정사서의 기록에 머문 탓이다.

두었다. 4월 왕이 탕정군(충남 온양)에 행차하였다. 5월 강주의 원보 진경이 고자군으로 양곡을 운반하는데 견훤이 몰래 군사를 보내어 강주를 습격하니 장군 유문이 항복하였다. 7월 왕이 친히 삼년산성(충북 보은)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청주로 행차했는데 후백제 군대가 청주를 침공하였다. 이때 유급필이 탕정군에 성을 쌓고 있었는데, [현몽을 얻어 청주로 가서 후백제군을 대패시킨 내용 등 중략]. **기축 12년(929)** 봄 3월에 대상 염상을 보내 안정진(평남 순안)에 성을 쌓고,...또 영청현(평남 수유?)에 성을 쌓았다. 4월에 서경에 행차하여 주 진을 순시하고 돌아왔다. 7월 기주(경북 풍기)에 행차하여 주 진을 순시하고 돌아왔다. 『고려사절요』 제1권, 태조 신성대왕)

따라서 견훤으로서는 경상도지역에서 운신의 폭이 더 커진 시점에서 신라 왕경 가까운 운문지역에 축성을 강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더욱이 (3-㉓)과 (3-㉔)을 보면, 이 시기 특히 축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공산전투 후 전쟁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서 양국은 전세 확장을 위해 군사기지를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고려의 축성 기록이 상세한 것은 아무래도 승자 편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후백제의 축성은 거의 대부분 후대 지지류(地誌類)의 기록이나 전설 또는 유적으로 전해지고 있다.⁵³⁾ 유일하게, 견훤이 관혼을 시켜 양산에 성을 쌓다가 고려군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이(928년) 기록된 것을 보면(3-㉓),⁵⁴⁾ 이 즈음 후백제도 성의 축조와 정비에 힘을 쏟았으리라 짐작된다. 청도의 지룡산성도 같은 시기, 같은 맥락에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성은 워낙 높은 산정에 위치해 있는 데다 성내에 물이 귀하여 대군이 상주할 만한 여건은 아니었지만⁵⁵⁾ 사방이 천험 절벽의 요새여서, 기습전에 능했던⁵⁶⁾ 견훤이 유사시 기습을 위한 상비군을

53) 문경시, 『견훤의 출생과 유적』, 127~134쪽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견훤산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다.

54) 고려군이 견훤군의 축성을 저지한 사건이어서, 유일하게 고려사가의 기록에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55) 『청도군지』, 936쪽.

5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한국중세사학회,

주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태조는 929년 7월의 경북 풍기 행차(3-㉠)를 시작으로 경상도지역으로 재입성을 서두른다. 지역 호족의 귀부도 재개되고 있다.

(3-㉠) **기축 12년(929)** 7월 왕이 기주(경북 풍기)로 가서 주 진들을 순행하였다. [견훤의 의정부 순주 침범 부분 중략] 9월에 왕이 강주(경북 영주)에 행차했다. ...견훤이 가은현(경북 문경)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12월에 견훤이 고창군(경북 안동)을 포위하므로 왕이 친히 가서 구하였다. **경인 13년(930)** 정월 재암성(경북 진보) 장군 선필이 귀부해왔다....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창군(경북 안동) 병산에 가서 주둔하였으며 견훤은 석산에 주둔하니 [이하 병산전투 부분 후략] (『고려사절요』 제1권 태조 신성대왕)

견성싸움(3-㉡)에서 확인된 태조의 동정(東征)도 이 무렵 태조의 경상도 재공략 과정이 기록의 편린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견성싸움 당시 보양은 밀양 봉성사에서 주석하고 있었으므로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다. 견성싸움 기사에 의하면, 청도 견성에 이미 들어와 있던 후백제군을 물리치기 위해 태조가 동정한 상황이었다.

공산전투 승리 후 견훤군은 청도지역까지 들어오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므로, 견성싸움 기사의 '산적' 사례처럼 아마도 청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진입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추론처럼 지룡산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경상도 재공략을 개시한 태조는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태조에게는 보양선사나 손공훈 장군과 같은 현지 유력인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고, 견성싸움의 협공을 거쳐 운문사 중창으로 이어지는 삼자간 연대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운문사의 전신이었던 대작갑사는 애초 호랑이가 웅크리고 쳐다보는 호거

2018), 52쪽 참조.

산의 흙맥을 진압하기 위해 지어진 비보(裨補) 사찰이었다는 설도 있다.⁵⁷⁾ 그 사찰이 후삼국의 난리로 망괴된 데다 문제의 산정에는 적군의 산성까지 들어서 있었으므로 태조와 보양이 서둘러 작갑(鵲岬)[운문사]이란 이름의 절을 중창하여 비보의 기능을 복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후삼국 전쟁 당시 도선의 영향으로 풍수비보론을 신봉했던 태조라면,⁵⁸⁾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도 호거산에 위치한 지룡산성과 운문사는 당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양국간의 대척적 공략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전설적 형상과 역사적 진실

전설은 실제 있었던 사실로부터 출발하지만, 전승의 과정에서 사실의 역사를 넘어서는 장르이다. 엘리아데(M. Eliade)는 구전 또는 민중적 기억이 사실적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2~3세기를 상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⁵⁹⁾ 세부적 사실들은 1~2세기를 전대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나말려초의 역사는 천 년도 넘었으니, 구전을 통해 사실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빈약하고 불완전하나마 기록 사료를 찾고 뒤지는 것이다. 때로 유적이나 전설의 증거물이 역사를 열어주는 코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세월이 쌓이면서 다른 사건들이 중첩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태진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민간의 기억은 사실보다는 구조를 통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기억의 역사를 주목한 피에르 노라(Pierre Nora)도 과거의 복원이나 재생이 아니라 현재 안에 있는 과거의 총체적 구조로서의 기억을 개념화한 바 있다.⁶⁰⁾

57) <경상도청도군동호거산운문사사적>, 『운문사지』(아세아문화사, 1977); 청도문화원, 『청도 운문사』(1999), 14~15쪽 참조.

58) 박종덕, 「나말려초 풍수지리사상의 기반과 형성」, 『한국민족문화』 64(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21~25쪽 참조.

59)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현대사상사, 1976), 127쪽.

60) 양호완,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역사교육연구회, 2009), 10~11쪽.

따라서 전설은 전승과정에서 사실과 형상이 넘나들게 된다. 예를 들어, “말음리에 있던 원이 폐지되고 이 마을에 새로 원이 들어선 이후로 신원이라 불리었다”는 지명유래 전설은 사실성이 강한 언술이다. 원이 있었던 역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령이가 한질, 두질이나 되는 큰 돌들을 산정으로 옮겨 올려서 쌓았다는 지룡산성 전설은 형상성이 더 부각되는 언술이다. 산성이 실재한다 해도 지령이의 신이한 역사(役事)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지령이를 신이한 존재로 보는 인식에서 나온 형상이므로, 여기서는 사실 여부보다 이러한 형상을 이루어낸 인식이 중요해진다. 전설의 역사를 읽는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왜 이런 인식과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 또는 이러한 전설적 형상들의 장기지속적 구조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전설이 말하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실과 형상의 거리 또는 관계에 대한 검증과 숙고가 필요하다.

청도지역의 건원전설들에도 사실과 형상이 넘나든다. 신원의 지명유래로 논의를 더 이어보면, 신원리가 되기 전에 이 마을은 솔개, 염창이[염창] 등으로 불렸다. 솔개는 마을에서 솔을 구웠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신라시대 이 곳에서 제철 단련업이 이루어진 흔적들과 운문솔의 명성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다. 염창의 유래로는 아래의 세 가지 담론이 전하고 있다.

(3-③) 염창의 지명유래담

① 울산 바닷가에서 구운 소금짐을 진 등짐장수들이 이 마을에 모였다가 각지로 흩어져 팔러 다녔다고 해서 염창이라고 했다.⁶¹⁾

② 운문사가 대찰로 번성하여, 많은 부식물을 저장 보관하던 공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염창이라고 했다.⁶²⁾

③ 지령이가 해코지를 많이 해서, 잡으려고 이 마을에다 소금창고를 만들어두었

61) 박순기 씨 제보(주 8) 참고.

62) 청도문화원, 앞의 책, 16쪽 참조.

다고 해서 염창이라고 했다. (2-㉔)

(3-㉔)의 세 가지 유래담 가운데서 이 마을이 소금이 모이는 곳, 곧 물류의 중심지였다는 ①과, 이 마을에 운문사의 소금[음식물] 창고가 있었다는 ②는 사실성이 강한 언술이다. 청도 남쪽 경계인 울산의 해안에서 구운 소금을 내륙으로 지고 가서 파는 등집장수들이 실제로 교통의 요지인 이 마을을 거쳐 갔다고 하므로, ①은 사실 쪽에 더 가까운 언술이다. 그리고 ②는 실제로 이 마을이 태조가 운문사에 시납한 전지가 있었던 사하촌(寺下村)이었던 데다, 고려조 대찰이 된 운문사 식구들의 먹거리 창고가 필요했으리란 점에서 역시 사실에 가까운 언술로 볼 수 있다.⁶³⁾ ①과 ②는 각각 그 사실들이 부각된 시대에 포착되고 형성된 담론들이다.

(3-㉔)-③도 견훤이라는 존재가 부각된 시대에 형성된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견훤/지령이가 해코지를 하는 나쁜 존재이므로 퇴치되어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언술에는 견훤 또는 지령이를 지지하는 집단과, 지령이를 퇴치하려는 집단 간의 대립구조가 내재해 있다. 곧 ‘소금 창고’의 이름을 공유하면서도, ③은 전승집단의 인식 또는 세계관이 관여되어 전혀 다른 형상과 구조로 실현된 것이다. 과연 누가 지령이를 잡으려고 하는가, 어떤 집단이 지령이에 대해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졌을까를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②와 ③은 의미 연계적이다. 후삼국 통일을 위해 태조-보양-손궁훈 삼자가 연대한 결과인 운문사는 견훤/지령이와는 대립관계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은 운문사의 소금창고가 적괴인 견훤/지령이를 잡는 데도 유용하리란 기대를 지닌 집단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다. 이것이 지명전설의 전승과정에서 갈무리된 역사적 진실의 한 국면이

63) <경상도청도군동호거산운문사사적>,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운문사지』, 1977, 18~19쪽에는 운문사 동쪽 2리 즈음에 염성고(鹽城庫)가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태조가 시납한 전지 500결 가운데 대천에 200결, 신수(?)·신원에 300결이 있었으며, 신수·신원의 300결로는 운문사 향화사에 정제미를 충당했다”는 내용이 있다. 대천은 운문면 소재지인 대천리를, 신원은 운문사가 위치한 운문면 신원리를 가리킨다. 김윤곤의 「여대의 사원전과 그 경작농민」(『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2), 164~169쪽에서 운문사 소유지 실태에 관해 상론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지역의 전설 전승집단이 지렁이에 대해 모두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과 경이의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선 지렁이는 이 지역에서 지룡의 형상과 언표를 얻고 있다. 이는 지렁이를 용의 신격으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㉞) · (2-㉟) · (2-㊱)에서 보았듯이, 지렁이는 영웅 건훤의 출생을 위해 이계에서 온 부성(父性)의 존재가 아니라, 직접 영웅이 되고자 온 이계의 신물(神物)이다. 또한 지렁이는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2-㉟) · (2-㊱)로 갈수록 죽음의 결말이 흐려지면서, 이계적 존재인 지렁이의 변신능력이나 산성 축조의 신이가 강조된다. (2-㉟) · (2-㊱)에는 짐승과 인간을 오가는 변신술을 가졌으며, 큰 돌들을 산으로 옮겨 올리고, 하루만에 산성을 쌓을 수 있는 신이한 존재에 대한 경이의 시선이 있다. 제보자들은 ‘짐승이 화했다’고 말하면서, 불매골에서 그 변신이 이루어졌다고 했다.⁶⁴⁾ 불매골은 신원리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로, 신라시대 무기 제작을 위한 제철 단련(鍛鍊)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불매는 풀무를 의미한다. 불과 쇠와 변신의 연결에서 고대사회의 야장(冶匠)이 연상되기도 한다.

어떻든 이러한 신이에도 불구하고 지렁이는 한결같이 거사에 실패한다. 신이한 능력으로 산성을 축조하여 인간으로 변신하여 왕이 되려고 도모했지만, 정체가 노출되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전설의 구조가 실패담으로 귀결된 것은 건훤이 패배한 역사가 이미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유형에서 나타나는 거사 실패의 이유가 흥미롭다. 특히 지역적 독자성을 보이는 (2-㉞) · (2-㉟)에서 거사 실패의 이유는 지렁이의 정체 노출 때문이다. ‘정체 확인-노출’의 에피소드는 비슷한 시기 이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이무기전설과도 닮아 있다. 특히 (2-㉟)는 밤마다 잠행하던 상좌의 뒤를 밟은 스님에 의해 정체가 노출된 이목[이무기]이 승천을 포기하고 이목

64) “불매골이라고 있어. 거기 불매를 봐가 지렁이가 화(化)를, 화해가주고.”(2-㉟)

소를 떠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부근에서 전승되는 이무기전설 두 편을 예로 든다.

(3-㉑) 운문사에 스님과 상좌 이목이 이목이 밤마다 나가서 이목소에서 광철이 [이무기]로 변하여 조화를 부리는 것을 스님이 보게 된다. 가뭄이 들자 스님이 이목에게 강우를 청했고, 이목은 비를 내리게 해주었다. 천제가 노하여 벌 주러 왔는데 스님이 지력으로 배나무 이목(梨木)을 벌 주게 했다. **승천도 못하고 정체가 노출되어 더 이상 이목소에서도 살 수 없게 된** 이목이 밀양 시레 호박소로 옮겨가면서 화가 나서 꼬리로 억산을 쳐서 갈라놓았다.⁶⁵⁾

(3-㉒) 청도 운문사에 주지스님과 이목이라는 상좌가 살았다. 저녁만 되면 상좌가 절 앞의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오곤 했다. 한번은 요란한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더니 **이목이 산의 돌과 나무를 못바닥으로 흘쳐 내려 못을 막고** 있었다. 웅덩이가 작아서 못을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못골 가면 '이무기못바닥'이라는 곳이 있다. 스님이 보고 호통을 쳤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못이 성지골까지 닿았을 것이다. **스님이 본 때문에 못도 못 막고 용이 되어 승천하지도 못했다.** 광철이[이목]가 날아가면서 화가 나서 꼬리로 억산을 치고 밀양 시레 호박소로 들어갔다. [후략]⁶⁶⁾

여기서 승천은 득룡(得龍)을 포함하여 어떤 구극적(究極的) 존재로의 승화를 의미한다.⁶⁷⁾ 또한 (3-㉒)에서 이목이 못을 막는 모습은 (2-㉑)에서 지령이가 산성을 쌓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돌을 산 위로 흘쳐 올리는가 못 속으로 흘쳐 내리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신이한 능력에 대한 묘사치고는 너무도 흡사하다. 구술 중 이목소 전설과 비슷하다는 말을 보태기도 했던 임학연 씨

65) 최부석 (여, 조사당시 77세) 제보, 청도 운문면 신원리 동점에서 1989. 9. 채록함.

66) 박국현 (남, 조사당시 71세) 제보, 청도 금천면 박곡리에서 2009. 7. 채록함(『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7-19 경북 청도군편(2013), 209~210쪽에 수록됨).

67) 천혜숙, 「운문사 주변 '이무기' 전승의 실재와 지역사적 맥락」, 『실천민속학』 29(실천민속학회, 2017), 98쪽.

는 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구술한다.

“그래 저 그 지렁이가 돌로 전부 흘쳐 올라가주고 성 찢라고(쥘으려고) 돌을
이래 세워 올리났다 카고. 돌이 참 금방 저 이 사람 말따나(말처럼) 돌이 전부
이래가 있다 카고.”(2-㉔)

이렇듯 지렁이와 이무기의 행위가 닮아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전설들
에서 굳이 견훤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신
이한 이계적 존재로, 인간계와 이계를 오갈 수 있는 변신자제한 능력을 가졌
다는 사실이 기억될 뿐이다. 지렁이는 축성을 통해, 이무기는 강우(降雨)를
통해 그 신이한 능력을 드러낸다. 둘 다 정체 노출에 의해 실패하는 결말도
유사하다. 곧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성취를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그
정체가 노출되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것이 이 지역의 지렁이전승과 이무기전
승의 공통된 구조이다.



지렁이는 지룡(地龍)이고 이무기는 수룡(水龍)이지만, 둘다 용속이고 수
신 계통인 점에서 양자는 상통하는 면이 있다. 전승에서는 둘 다 물속에만
들어가면 힘이 솟는 것도 닮았다. 따라서 전승의 과정에서 혼효나 교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 모두 신이한 신물(神物)로 보는 시선과 괴이한 이
물(異物)로 보는 시선을 오가는 것도 유사하다. 언술 상에서 드러나는 괴이
시(怪異視) - 기이시(奇異視) - 신이시(神異視)의 단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하나의 언표가 여러 가지를 함의하는 경우도 있음을 전제로 한 도식
화이다.

괴이	기이/경이	신이
(-)	(±)	(+)
지령이	지룡	용(?)
괭철이	이무기	용

굳이 비교하면, 지령이보다는 이무기 쪽이 전승이 더 풍부하고 신력도 더 대단한 편이다.⁶⁸⁾ 전승에서 이무기는 변신술과 강우의 능력 외에도, 못을 막거나 축지법을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견훤전승이 이무기전승에 포섭된 형국이다.

양자가 이토록 닮아간 이유, 또는 지령이전승이 이무기전승에 구조적으로 포섭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의 지령이전승은 후백제 왕 견훤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견훤이라면 고려조 이래 간악하고 횡포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변이가 납득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역유형의 독자성은 역시 지역사의 맥락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당시 청도지역의 정치사나 사회경제사적 맥락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

나말여초 경순왕이 고려에 강부(降附)할 결심을 표명했을 때, 마의태자를 비롯하여 군신들 가운데는 불가론도 만만치 않았다.⁶⁹⁾ 따라서 고려 통일 이후에도 신라 왕경을 중심으로, 반(反) 고려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세력집단들이 오래 존재했다. 고려초 경주대도독부를 설치한 이유도 그러한 세력들을 염두한 때문이다. 또한 고려 무신집권기, 한반도 남부에서 신라부흥 또는 반고려를 표방하고 일어난 민란의 중요한 주동세력이 청도의 운문적이었다. 그리고 청도 운문산은 그 운문적의 근거지였다.

(3-⑤) 이때 남방에 도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강한 자 김사미는 운문에 웅거하

고 효심은 초전에 웅거하여, 망명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 현을 협박하고 약탈하였

68) 이 지역의 이무기전승에 대한 논의는 위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69) 『삼국사기』 권제12 신라본기 제12, 경순왕 조 참조.

다. 왕이 이를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전존걸을 보내어 장군 이지순, 이공정, 김척후, 김경부, 노식 등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케 하였다.⁷⁰⁾

(3-①) 5월에 ... 밀성의 관노 50여 명이 관가의 은그릇을 도둑질하여 **운문적에 계로 달아났다**.⁷¹⁾

한편으로는 운문사가 고려 태조로부터 오갑의 전지 500결을 시납 받은 사실 때문에도 당시의 지역민들은 운문사에 대해 결코 우호적일 수 없었다. 망과된 오갑의 전지를 이미 점유하거나 경작해 온 지역 농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작지를 운문사로 양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전지 500결의 시납은 후삼국 혼란기에 발생한 타인의 점유와 경작 등의 제 관계를 무리하게 청산하고 오로지 운문선원의 소유를 확인해 준 태조의 특단적 조치였고, 그로 인해 사원전의 소유권에 따른 분쟁이 고려 일대를 통해 계속 제기되었다.⁷²⁾ 운문사 중창으로부터 3세기가 더 지난 시기에 일연이 운문사 소유지를 증명하는 장생표의 위치와 관계 공문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도⁷³⁾ 사원전의 소유권 분쟁이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운문적에도 운문사 소유지의 경작민들이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⁷⁴⁾

이러한 지역사 속에서 복호산 굴 속의 지령이와 이목소의 이무기는 ‘반(反) 운문사’, 나아가서는 ‘반 고려’를 지향하는 집단의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의 다발로 묶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 이 지역의 견훤관련 전설군에서 견훤의 이름이 사라진 이유이다. 곧, 견훤의 ‘사실’에서 지룡의 ‘형

70) 『고려사절요』 권13, 명종 계축23년(1193년).

71) 『고려사절요』 권14, 신종 경신3년(1200년).

72) 김윤곤,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 『한국중세사연구』 9(한국중세사학회, 2000), 226~227쪽.

73) 『삼국유사』 권제4 의해 제5, 보양이목.

74) 김윤곤의 앞의 글(1982), 170~171쪽에서는 그 배경으로 고려 무인정권의 대사원정책의 시행착오를 들고 있다. 곧 무인정권이 사원의 경작민[전호]들에게 조세와 공역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원의 수취와 더불어 이중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된 그들이 유망·붕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때 운문사가 ‘운문적’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운문사와 김사미란」, 『한국학보』 54(일지사, 1987)과 배상현의 「고려시대 운문사의 사원전 경영」, 『한국중세사연구』 4(한국중세사연구회, 1997)을 참고할 수 있다.

상'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형상인 이무기와도 혼효가 이루어졌다. 지룡과 이무기의 형상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수신계 신성의 상징인 동시에 쉬이 정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반 고려 집단의 상징으로서, 또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했던 운문적의 상징으로서 민중의 사회변혁적 기대를 담아 온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임봉두 씨는 운문산 산중에는 아주 깊은 굴들이 많았으며, 옛날에는 그 굴 속에 사람들이 숨어 살았다고 했다. 임봉두 씨 형제로부터 길이가 삼십 리가 넘는다는 '신대장군 굴' 전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⁷⁵⁾ 신대장군이 누구인지 알 길은 없으나 이 전설에는 분명 고려조 운문적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당시 이른바 남적(南賊) 가운데 특히 운문적의 수괴인 패좌가 쉬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 또는 그가 잡히면서 오랜 반란이 끝나게 된 이유를,⁷⁶⁾ 신대장군 굴과 같은 천연 요새가 한 둘이 아니었던 운문산의 산세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제보자들이 신대장군이란 존재에 대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오히려 경이로운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운문적' 사건 역시 그 우두머리인 김사미가 투항하고 패좌가 사로잡히면서 결국 패배한 역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이무기나 지령이전승에서 '정체 노출-거사 실패'의 구조가 두드러진 것도 늘 비밀리에 회동해야 했던 운문적 수괴들의 존재방식에 비추어 볼 만하다. 이들은 늘 누군가에 의해 정체가 노출되어서 잡히거나 사라지거나 한다. 그래서 결국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우두머리는 참수 당하지만, 민중의 정신세계는 그들의 죽음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정체가 노출된 것을 안 지령이가 잠적하는 (2-㉔)와 같은 구조는 이무기전승에서는 더 풍부한 사례들이 확인된다.⁷⁷⁾ 이렇듯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주 또는 잠행의 결말을 취하는 구조는

75)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2009. 7. 25. 채록함.

76) 고려 신종 6년(1203년), "추7월 정언진이 (운문적) 패좌를 유인하여 죽이니, 모든 도적들이 평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동사강목] 제10 상, 신종 6년 계해년 참조)

77) 천혜숙, 앞의 글, 99~101쪽 참조.

영웅의 재귀나 귀환을 바라는 민중적 기대와 연관된 것이다. 이는 구비전승에서 세계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영웅의 귀환(the returning hero)’ 구조로, ‘아기장수’ 전설처럼 사회변혁적 의미가 강한 전설들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4. 결어

나말려초의 청도에 관한 역사에서 ‘견훤’은 부재한다. 신라 왕경과 인접한 요충지였음에도 당시 이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사서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청도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일군의 전설들은 견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가 쌓았다는 지룡산성도 흔적이 남아 있다.

후삼국전쟁이 치열했던 지역들에서 대체로 사료와 함께 풍부한 전설들이 전해온 것과 비교하면, 청도지역의 사례는 기록이나 전승 모두 소략한 편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설군은 신라 왕경의 서단인 운문지역에서 채록된 데다 지역적인 독자성과 변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전설과 역사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우선 청도는 신라 왕경의 근기(近畿) 지역으로 왕경 수호를 위해 서기정이 배치되어 있던 곳이다. 또 왕경의 동쪽 경계인 청도 운문지역에는 일찍부터 한반도 서남부에서 신라 왕경으로 들어가는 교통로도 개척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말려초 후백제와 고려가 경상도 공략에 힘을 쏟았을 당시 이 지역에서도 교전과 공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단 운문지역에 집중된 견훤전설의 전승 자체가 그러한 역사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견성싸움의 기록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교전과 공략의 역사를 읽는 데 결정적인 단서이다. 청도 지경에서 있었던 고려와 백제군의 교전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싸움을 계기로 태조는 보양선사 및 손공훈 장군과 연대를 결성하고, 운문사 중창을 통해 청도지역을 우회적으로

공략해 들어간 것이 확인된다. 그에 비해 견훤의 청도 공략에 대해서는 전성 싸움 기사 외에는 어떤 단서도 없다. 견훤이 쌓았다는 지룡산성이야말로 이 미궁의 역사를 풀어줄 수 있는 단초이다. 후삼국 전쟁사의 흐름을 따라서 추론해 보면, 공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전세가 유리해진 견훤이 이 시기 진주-밀양-청도의 공략로를 따라 청도로 들어와서 지룡산성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견훤의 지룡산성 축조’와 ‘태조의 운문사 중창’은 호거산을 중심으로 청도지역에서 전개된 양국간의 대립적 공략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사건이다. 다만 승자 편의 운문사가 고려조 이래 승승장구 대찰로 발전한 데 비해, 패자의 지룡산성은 거의 무너진 채 몇 편의 전설로 역사적 기억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견훤전설들이 담아낸 역사적 진실은 나말려초의 사실적 역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실의 기억은 전설의 전승과정에서 형상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청도지역의 견훤전승에서는 후백제 왕 견훤이 점차 망각되고 지룡이로, ‘지룡’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지룡의 언표와 형상은 그를 용신격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역적 변이에서 지룡은 신이한 능력으로 거사 도모를 위해 산성을 쌓았지만 그 정체가 노출되어 실패하는 존재이다. 또한 지룡의 정체 노출-거사 실패의 구조화를 통해 동 지역의 이무기전승과도 접맥되고 혼효되는 흥미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한편 지룡이나 이무기의 실패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주나 잠행으로 유보되는 변이는 민중의 정신세계가 늘 패배한 영웅의 재귀나 귀환을 기대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러한 민중적 세계관이야말로 전설적 형상과 구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이다.

후백제 왕 견훤은 고려 통일 이후 부정적으로 인식된 역사가 오래되었으므로 청도지역의 전설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이들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려 태조로부터 시납받은 운문사 소유지에 대한 분쟁의 역사, 그리고 신라 멸망 후부터 고려 무신 집권기까지 ‘신라부흥’ 또는 ‘반고려’를 표방한 민란의 역사가 이 곳 운문지역에서 지속되었던 지역사의 맥

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는 청도군 구비문학 조사시에 채록한 견훤전설 네 편이 준 충격과 여운을 쫓아서, 전설 자료를 더 찾고 다른 지역의 자료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후삼국 전쟁사 자료들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전설이 열어주는 역사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료의 한계나 역사적 상상의 경계가 자주 발목을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견성과 오해산성 등, 후삼국 전쟁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청도 내 다른 지역에 대한 미시적 탐색을 더하여 이 논고를 보완하는 일이 남아 있다.

■ 참고문헌

자료편

- 『견훤의 출생과 유적』, 문경시, 1996.
『고려사』
『고려사절요』
『사료와 전설로 보는 견훤』, 문경문화원, 2003.
『동사강목』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손씨세덕록』 상, 전국손씨화수회, 기종족보사, 1993.
『운문사지』,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아세아문화사, 1977.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7-19 경북 청도군, 2013.
『청도군지』, 청도군, 1991.
『청도 운문사』, 청도문화원, 1999.
『한국구비문학대계』 7-9 경북 안동시, 1981.

논저편

-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김광식, 『운문사와 김사미란』, 『한국학보』 54, 1987.

- 김명진, 「고려태조 왕건의 운주 전투와 궁준의 역할」, 『군사』 96, 국방군사연구소, 2015.
-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 김수태, 「견훤정권과 불교」, 백제연구소 편,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 김윤곤, 「여대의 사원전과 그 경작농민」,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_____, 「여대의 운문사와 밀양·청도지방」,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편,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 _____, 「고려시대 경상도지역의 사회발전과 불교문화」, 『민족문화논총』 2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
- _____,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 『한국중세사연구』 9, 한국중세사학회, 2000.
- 라인정, 「견훤설화의 구비전승 상의 변이와 특징」, 『한국언어문학』 45, 한국언어문화회, 2000.
- 류영철, 「공산전투 재검토」, 『향토문화』 9·10합집, 전국향토사연구회, 1995.
- _____, 「고려 건국의 발판, 고창전투」, 안동시·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편, 『고려시대의 안동』, 예문서원, 2006.
- 문안식, 『후백제전쟁사 연구』, 혜안, 2008.
- 박종덕, 「나말러초 풍수지리사상의 기반과 형성」,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 배상현, 「고려시대 운문사의 사원전 경영」,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연구회, 1997.
- 신혜진, 「고전문화와 지역성」, 『어문논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양호완, 「집단지역,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 역사교육연구회, 2009.
- 이기동, 「신라 중고기 청도 산서지방의 전략적 중요성」, 『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97.
- 이도학, 『진훤이라 불러다오』, 푸른역사, 1998.
- 이명식, 「나말러초 성주지방의 호족세력」,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 이수진,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90(1984).
- 정청주, 「견훤의 호족정책」,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19, 전남사학회, 2002.
- 진단학회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1981.
- 진상기, 『청도 속으로』, 신원사, 2011.
- 채수환, 「신라말 고려초 선종과 호족의 결합」, 『역사와 사회』 8, 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 1992.
- 최종식, 「나말러초 성주·장군의 정치적 위상과 성城」, 『한국사론』 5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 천혜숙, 「운문사 주변 「이무기」 전승의 실재와 지역사적 맥락」, 『실천민속학』 29, 실천민속학회, 2017.
- 황인덕, 「견훤전설의 한 고찰」, 백제연구소 편,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 _____, 「연무읍 지역의 견훤전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46, 한국언어문화회, 2001.
- 황진현, 「역사적 사실의 민속문화 형성과 민속의 사료기능」, 안동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2009.
- 로버트 단턴,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1996.
- M. 엘리야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6.

The History of the Facts or Figures seen in Kyeunhuen(견훤) Legends of Cheongdo

Chun, Hye-sook*

There are not many legends related to Kyeunhuen in Cheongdo, but it seems to be a meaningful example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gend and history in that it shows interesting variations. This study covered this topic from generally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is to confirm that the distribution of legends is a reflection of historical facts. The second is to explore how legendary facts can partially supplement the absence of history. Finally, we will look closer at the history of the figures and structure made in the legendary tradition.

First of all, Cheongdo was the nearest area of the Capital of Shilla, and there was a corps for protecting the Capital. Yunmoon area in Cheongdo, where legends are recorded, was the western boundary of the Capital of Shilla, where a traffic route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pioneered. Therefore, I think that post Baekje and Goryeo were troubled about the attack on this area, and there would be actually some battl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can see it from the fact that related legends are handed down in this area.

The record of the ‘Battle in the ‘Kyeun Castle’(견성싸움)’ of “Samguk Yusa (삼국유사)” is a crucial clue to reading the history of war in Cheondo. As

* Andong National University

a result of this fight, Taejo(태조) cooperated with Bongyang, a monk of the Zen sect family, and General Shon Kunghoon, a nobleman of Miryang, to build a Yunmunsa temple and made it the base for a roundabout attack to Cheondo. On the other hand, Kyeunhuen's attack has no other clues other than the expression of 'bandit' in articles of the the Battle in the 'Kyeun Castle'. The only code that can unlock the history of this labyrinth is remains and legends about the Castle of the earth Dragon' (지룡산성) which was built by Kyeunhuen. Following the flow of the war history between post Baekje and Koryo at that time, it can be seen that the construction of Castle of the earth Dragon and the construction of Yunmunsa Temple by Taejo symbolize the confrontational attack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heongdo region. Yunmunsa, which received the victory of the winner, has greatly developed as a large temple since Goryeo, while Castle of the loser has been ruined with several legends.

However, the historical truths of Kyeunhuen's legends are not limited to complementing the real history of the time. The memory of fact tends to be shaped and structured in the tradition of legend. In Kyeunhuen's legends of Cheongdo, Kyeunhuen as King of the post Baekjae was forgotten, instead it was transformed into earthworm or was shaped as an 'earth dragon'.

There is an ambivalent perception about earthworms, but the figure of the earth dragon means a God dragon. The dragon has built a Castle for revolution with its superior ability, but the identity was exposed and failed. In addition, legends of the region show a structure in which the revolution was failed due to the exposure of identity, and there are interesting variations that are wedged and mixed with the Imugi legends (이무기 전설) of the same area.

Sometimes the failure of an earth dragon or Imugi does not end with death, but shows up as an immigration or a hiding, because the spirit of the people

expects the recurrence or return of the defeated hero. I think this popular world view is the historical truth that can be revealed through the legendary figures and structure

These variants identified in the Cheongdo area may not be easily understood, because the Kyeunhuen has been recognized as negative since the Goryeo reunification. These variations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regional history of the dispute over the possession of the Yunmunsa temple given by the patronage of Taejo and of the revolt for the revival of Silla or the anti-Goryeo.

[Keywords] Kyeunhuen(견훤), earthworms, earth dragon, regional variations, exposure of identity, mountain Castle, Yunmunsa temple, Imugi, history of facts, historical truth, figures, structure, world view

이 논문은 2019년 1월 31일 투고되어,
2019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2월 18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